View metadata, citation and similar papers at core.ac.uk
brought to you by CORE
provided by K-Developedia(KDI School) Repository

Working Paper 99-26

황해권의 산업협력 전망과 한반도 산업입지구상 연구

권 영 섭

국 토 연 구 원

차 례

제1장 서 론 ····· 9
1. 연구의 배경 ····· 9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9

제2장 국제환경 변화와 동북아경제권 형성
1. 국제환경변화와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 ····· 11
   1) 국제환경변화 ····· 11
   2) 동북아경제권의 위상 ····· 13
2. 동북아의 다층적 경제권 형성과 국토개발전략 ····· 14
3. 경제권 형성의 요소조건 및 효과 ····· 19
   1)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 ····· 19
   2) 경제권 형성의 조건 ····· 19
   3) 경제권 형성의 효과 ····· 20

제3장 황해경제권 산업협력 및 산업입지 특성
1. 산업협력과 경제권 형성 ····· 21
2. 한·중 상호보완성 및 산업경쟁력 분석 ····· 22
   1) 지리적 인접성 ····· 22
   2) 상호보완성 분석 ····· 22
   3)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 28
3. 한·중 지역경제 및 산업입지 특성 ····· 31
   1) 중 국 ····· 31
   2) 한 국 ····· 31
   3) 북 한 ····· 32
4. 한·중 산업 및 지역정책방향 ····· 33
   1) 21세기 한국의 산업정책방향 ····· 33
   2) 중국의 9·5계획과 2020 지역별 산업정책방향 ····· 33

제4장 여건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전망 ····· 36
   1) 세계화와 지역화의 심화 ····· 36

2) 중국의 성장전망 ····· 36
3) 산업 및 산업입지 경쟁 격화 ····· 39
2. 황해권 형성 및 산업협력이 국토에 미칠 영향 ····· 39
1) 기회요인 ····· 39
2) 산업협력 및 경제권형성의 제약요인 ····· 40

제5장 황해권 산업협력에 따른 한반도 산업입지 구상
1. 한반도 산업입지 기본 방향 ····· 41
1) 생산요소 공급방식의 획기적 개선 ····· 41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 ····· 41
3) 다층성과 점진성을 바탕으로 하고 산업, 기업, 도시 및 국가간 제휴와 연대를 통한 소지역 협동개발 ····· 42
4) 황해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산업협력과 환경협력의 조화 ····· 42
2. 한반도 산업입지 추진 전략 ····· 42
1) 보완성과 첨단성을 갖춘 산업구조 및 지역구조로의 개편 ····· 42
2) 전략적 산업지대 구축 ····· 43
3) 서해안 개발계획의 조속한 추진 및 보완 ····· 45
4) 황해권 산업협력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연계추진 ····· 45
5) 황해권 산업협력·기술협력·환경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46
3. 한반도 산업입지 구도 ····· 46

참고문헌 ····· 49

부 록 ····· 51

표 차 례

<표 2-1> 동북아의 주요 경제지표 ····· 13
<표 2-2> 한·중·일 3국의 수출결합도 ····· 14
<표 2-3> 동북아 국지경제권과 각국의 국토개발전략 ····· 18
<표 3-1> 한·일·중 3국의 경쟁우위 비교 ····· 24
<표 3-2> 대중 10대 수·출입 및 흑·적자 품목 현황(1997) ····· 25
<표 3-3> 업종별 대중국투자 현황(1997) ····· 26
<표 3-4> 한국의 대중국투자 추이 ····· 27

<표 3-5> 한국 대중국투자의 지역분포(1996년말 현재) ····· 27
<표 3-6> 한·중·일간 주요 품목별 무역특화도 지수 비교 ····· 29
<표 3-7> 시장점유율 비교 ····· 29
<표 3-8>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 비교 ····· 30
<표 3-9>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지수 ····· 32
<표 3-10> 21세기 한국의 산업정책 ····· 33
<표 3-11> 중국의 주요산업과 집중발전분야 ····· 34
<표 3-12> 중국의 산업·지역 특성 및 중점육성분야 ····· 35
<표 4-1> 세계 주요국가·지역의 경제성장률 ····· 37
<표 4-2> 대중수출의 성장 추이 ····· 37
<표 4-3> 2015년 국가·지역별 GDP 전망 ····· 38
<표 4-4> 중국의 산업구조변화 전망 ····· 38

그림차례

<그림 2-1> 세계경제체제의 3유형 ····· 12
<그림 2-2> 동북아의 다층적 경제권과 한·중·일 3국의 국토개발전략 ····· 17
<그림 5-1> 경제권 형성의 경로 ····· 45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9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큰 조류는 경제적 요소가 중요시되는 세계화와 지역화로 설명된다. 세계화는 WTO체제의 출범과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물결로 그리고 지역주의는 EU, NAFTA 및 각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나타났다. EU와 NAFTA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세극의 하나인 아시아는 아직 이렇다할 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동북아 지역은 세계 GDP의 1/4을 차지하고, 세계교역액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는 경제권형성의 필요조건인 역내 국가간 지리적 인접성외에도 경제요소의 상호보완성이 높아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며, 최근 역내국가간의 경제교류확대로 동북아를 둘러싼 크고 작은 경제권 형성이 논의 혹은 가시화되고 있다.

또다른 세계경제의 조류는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산업생산기지 대이동과 선진국 경제활동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서유럽, 일본으로부터 중남미, 동아시아,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으로 값싼 노동력을 찾아 산업생산기지가 이동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의 제조업 공정과 서비스업에 특화하고 저부가가치 제조업은 개발도상국이 담당하는 국제적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의 세계화, 지역주의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간 경제불균형, 자원부족, 협소한 시장 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력의 원

천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노동, 자본, 기술 같은 생산요소의 공급방식과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보완관계가 있는 주변국가와 인프라 및 생산요소에서의 협력이 절실하다.

또, 한편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의 증대로 한반도 북부지역에 공단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황해권, 동해권 등 한반도를 둘러싼 하부지역 경제권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한반도 산업입지 전략은 미흡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고, 중단기적으로는 환황해경제권 형성, 한·중간 및 남북간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비하여 첫째, 세계경제 속에서 동북아, 황해권의 경제적 위치를 확인하고, 둘째, 현재 한반도와 주변국에서는 산업을 중심으로 어떤 움직임이 진행중이며, 한국은 어떤 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셋째, 주변국은 어떤 산업 및 지역 발전전략을 강구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황해권 산업협력이 향후 국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산업협력의 제약요인은 무엇인가를 살펴서 다섯째, 21세기 한반도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추진할 것인가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국제환경 변화와 동북아경제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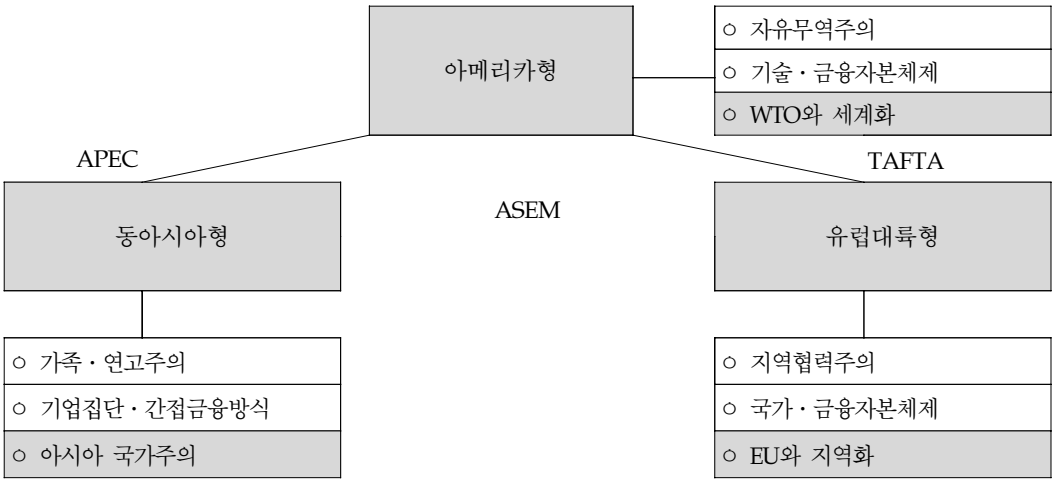
1. 국제환경변화와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

1) 국제환경변화

'90년대에 들어서서 세계경제의 큰 조류는 양극체제의 붕괴에 따라 정치적, 군사적 요소에 비해 경제적 요소가 중요시되는 세계화와 지역화로 설명된다. 세계화는 WTO 체제의 출범과 이를 뒷받침하는 무역 및 투자자유화의 물결로 그리고 지역주의는 EU, NAFTA 및 각 지역에서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나타났다.

EU와 NAFTA로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세극의 하나인 아시아는 아직 이렇다할 경제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WTO 132개 회원국 가운데 경제블록에 속해 있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며, 아직 WTO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을 포함하면 동북아 주요 국가는 세계경제의 주요 흐름에서 비껴 있다.

또 다른 세계경제의 조류는 과학기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시대의 도래로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산업생산기지 대이동과 선진국 경제활동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서유럽, 일본으로부터 중남미, 동아시아, 동유럽 등 개발도상국으로 값싼 노동력을 찾아 산업생산기지가 이동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부가가치의 제조업 공정과 서비스업에 특화하고 저부가가치 제조업은 개발도상국이 담당하는 국제적 분업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주: TAFTA는 최근 EU측 요구로 "신범대서양 시장"(NTM: New Transatlantic Marketplace)으로 개칭.
자료: 이대근・김인수, 한국경제의 발전과정과 대기업주의, 삼성경제연구소, 1998참조.

<그림 2-1> 세계경제체제의 3유형

한 제품의 부품들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보편적 추세로 제조업의 공정과정은 국제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점점 더 많은 제품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한편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에서는 경쟁이 격화되고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원자재의 구입, 제품의 생산, 제품의 판매 등이 분리되지 않고 결합되기 시작하였으며 한 기업의 전 부문, 전 생산공정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추세이다.

세계경제의 한 극으로서 동아시아가 EU, NAFTA 등 지역주의화와 투자에 따른 국제분업화, 서비스화 추세에 대응하는 방법은 역내 자유무역지대 형성 등을 비롯한 하부지역 경제권 형성 외에도 역외국 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 입지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역내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해서는 작동중인 성장삼각지대 방식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제휴와 협력은 거의 시장, 노동력, 자원, 기술 및 자본을 서로 활용해서 이익을 얻는 초국경적 형태의 경제조직체이다. 역외국 산업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자재 공급원의 창출, 부단한 기술개발 그리고 해외직접투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원자재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보고인 동북아 활용,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자본과 인재가 활발히 교류할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2) 동북아 경제권의 위상

(1) 동북아 경제권과 경제적 위상

동북아 경제권의 범위는 연구자 마다 다르나 대체로 국가단위로는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몽골이 포함되며,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있는 러시아와 아시아의 전역에 걸쳐있는 중국의 경우 일부지역 예컨대 극동러시아 및 양자강 이북의 중국만을 포함시켜 정의하기도 한다.

동북아의 경제규모를 국가 단위로 보면, 대체로 세계 인구의 27%, 세계 면적의 21%, 세계 GNP의 23%를 차지한다. 그중 동북아 GNP의 95%, 세계 GNP의 22%를 한・중・일 3국이 차지하여 아직까지 동북아 경제는 한・중・일 3국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무역규모로 보면 동북아 경제는 세계 총수출량의 12.5%를 수입하고, 세계 총수입량의 20.3%를 수출하며, 역내 무역의존도는 20.9%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의 무역액은 세계무역액의 12.7%를 차지하며, 한・중・일 3국간의 무역의존도는 19.2% 수준이다<부표 1참조>.

<표 2-1> 동북아의 주요 경제지표

	인구 (백만명 1996)	면적 (천㎢ 1996)	인구 밀도 (인/㎢ 1996)	GNP (10억$ 1996) 세계순위	1인당GNP (구매력기준) (10억 $,1996) 세계순위	무역 비중 (GDP중) (1996,%)	도시 화율 (1996)	산업구조 (% of GDP, 1996)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한 국	46	99	460	483.1 (11위)	13,080 (25위)	69	82	6.3	42.9	50.8
중 국	1,215	9,326	130	906.1 (7위)	3,330 (72위)	40	31	20.4	49.5	30.1
일 본	126	377	330	5,149.2 (2위)	23,420 (5위)	17	78	-	-	-
한·중·일 소계(%)	1,387 (24.1)	9,802 (7.5)	-	6,538.4 (22.2)	-	-	-	-	-	-
북 한	22	120	190	-	-	-	62	-	-	-
러시아	148	16,889	9	356.0 (15위)	4,190 (65위)	42	76	-	-	-
동북아 소계(%)	1,557 (27.1)	26,811 (20.6)	-	6,894.4 (23.4)	-	-	-	-	-	-
세 계	5,754	130,129	44	29,510	6,200	43	46	-	-	-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8 CD-ROM.

EU와 NAFTA 형성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경제규모(무역량기준)가 전 세계의 15%, 역내 교역의존도가 30%이상은 되어야 역내국가들이 경제통합체 형성에 적극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 경제권은 역외국가들과 밀접한 교역관계를 보이는 개방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동북아 경제권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가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편, 한・중・일 3국간의 경제관계 역시 강한 보완성이 존재한다.

무역구조 면에서 강한 보완성이 존재할수록, 지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양국간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수출결합도[1)]를 보면, 한・중・일 삼국의 수출결합도는 강한 편이다. 한중일 삼국의 수출결합도는 1996년 현재 한-중 3.42, 한-일 1.89, 중-한 1.79, 중-일 3.15, 일-한 2.56, 일-중 2.06으로 강한 편이며, 특히 한-중, 중-일의 결합도가 높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2-2> 한・중・일 3국의 수출결합도

		대 한국	대 중국	대 일본
한 국	1990	-	0.58	2.84
	1994	-	2.36	2.17
	1996	-	3.42	1.89
중 국	1990	0.98	-	2.12
	1994	1.50	-	2.74
	1996	1.79	-	3.15
일 본	1990	2.99	1.38	-
	1994	2.54	1.73	-
	1996	2.56	2.06	-

2. 동북아의 다층적 경제권 형성과 국토개발전략

현재 한・중・일 3국이 포함되어 형성중인 국지경제권[2)]은 환황해경제권, 환동해경

1) 수출결합도는 교역상대국에 대한 수출의 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수출과 관련하여 특정시장과의 긴밀한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수출결합도 지수가 1보다 크다면 전세계 총수입에서 교역상대국의 총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더 큰 비중으로 당해국이 교역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교역상대국의 당해국과의 긴밀도가 전세계 시장과의 평균적인 긴밀도 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A국의 B국에 대한 수출결합도(\%)} = \frac{\text{A국의 대B국 총수출/A국총수출}}{\text{B국총수입/세계총수입}}$$

2) 하부지역경제권 형성의 시작은 우선 지역간의 보완성을 전제로 한다. 인적, 물적 자원의 보완성 뿐만 아니라 기술이나 산업의 보완성도 지역협력의 초기조건이다. 초국경적 협력은 보통 관련지역들이 경제적 비교우위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추진하며(Church & Reid 1996), 초국경적 협력은 통합을 통하여 중심-주변격차를 줄일수 있다고 한다.

제권, 화남경제권, 두만강유역개발 그리고 성장의 사각지대가 있다<그림 2-2, 표 2-3 참조>. 특히, 환황해 경제권과 환동해 경제권은 주로 한·중·일 3국이 중심이며, 현재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국가간의 입장이 상이하여 본격적인 경제권형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역협력체 구성에서 중국을 배제하려 하며, 더 광범위한 아·태 지역을 대상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 따라서 동경일극집중 및 일본해(동해) 국토축 서쪽의 낙후지역격차의 해소전략으로 환동해권 경제협력에 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 또는 개별회사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가 주변국가의 지방정부와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예: 니가타현, 키타규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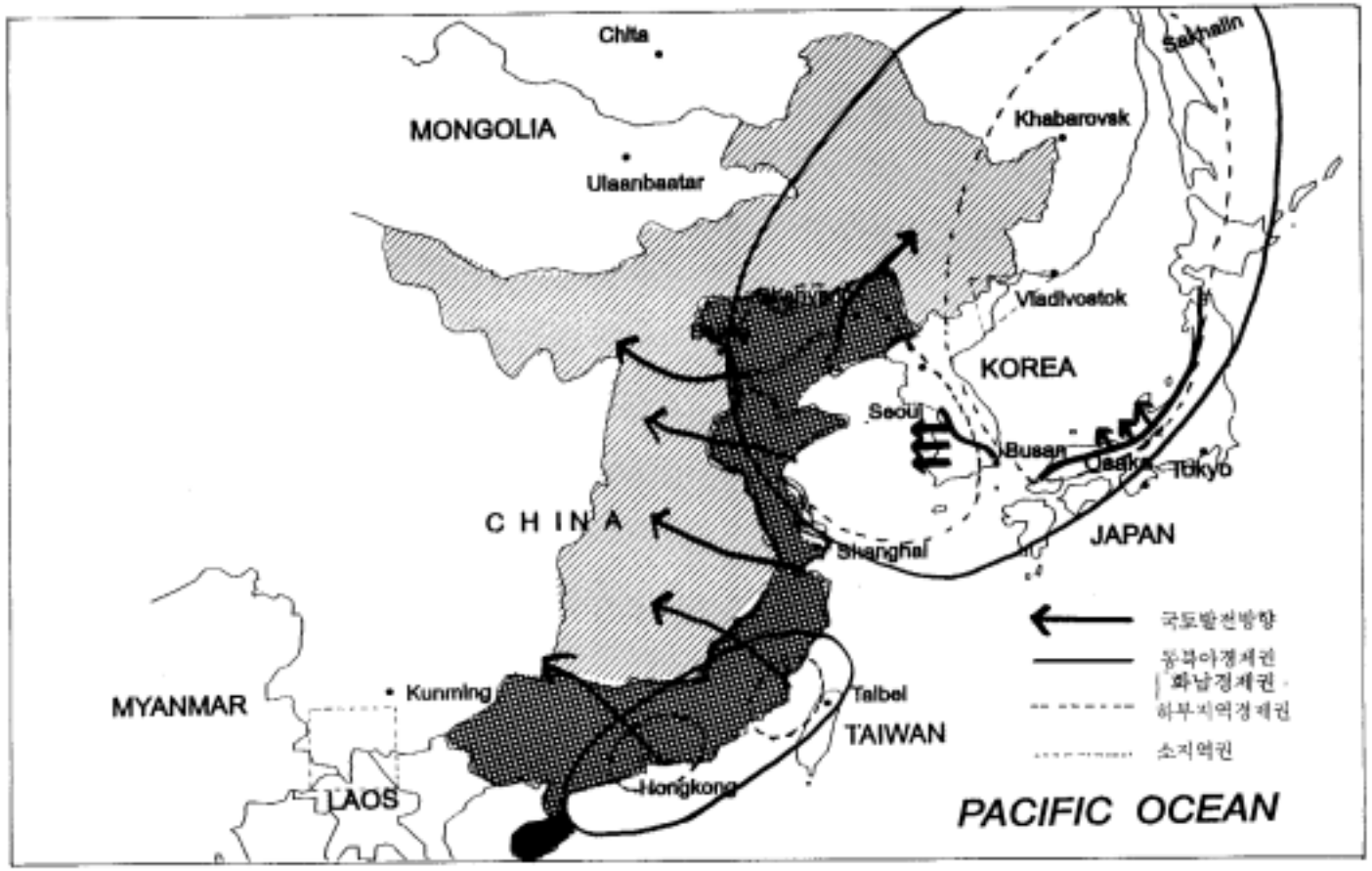
중국은 지역협력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와 연계하여 접근하고 있다. 동부연안개발[3]을 위해 한국과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주변국가와의 교역을 선호하여 환황해 경제권에 적극적이다. 福建省, 浙江省, 廣東省, 대만 및 홍콩을 연결하는 화남경제권은 장차 동남아국가까지 포함하는 남중국해경제권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환동해경제권, 두만강개발계획, 성장의 사각지대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국제화전략[4]을 꾀하고 있다.

한국은 지역간 경제불균형 및 저성장의 국내문제를 해소하고, 남북한 통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심각한 교통난, 지역간 경제불균형, 자원부족 등 경제문제에서 인접국가와 인프라 및 생산요소에서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부즈앨런 보고서에서 지적하였듯이 한반도의 지경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변국가와의 통합을 이루어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남북한 통합을 모색해야할 입장이다.

---

3) 중국은 대외개방정책으로 개혁의 실험단계(1978.12~1984.9)에는 심천·주해·산두(80.8), 하문(80.10)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14개 연해도시를 개방하였다(84.5). 개혁의 본격화단계(1984.10~1988.9)에는 장강·민남·주강 삼각주, 연해경제개방구를 설치하고(85.2), 연해지구 경제발전전략을 채택하여(88.3). 요령반도·산동반도·발해만지구를 연해개방구로 지정하였다(88.3). 해남도를 성으로 승격하여 경제특구로 개방(88.4)하였으며, 개혁의 조정단계(88.10~91.12)에는 상해 포동지구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90.4).

4) 중국 지역경제의 국제화전략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경사발전전략(large gradient development strategy)와 유사한 개념이다. 즉, 중국식 개방경제의 관점에서 중국 동·중·서부의 경사관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와 중국의 연해지역간, 내륙국경지역과 인접국가간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장차 중국의 경사전략은 아시아·태평양경제-중국연해-내륙-국경지역-국경국가들을 모두 포괄하는 대경사발전전략으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의 첫단계는 중국연해와 일본 및 새로이 공업화된 아시아 경제(아세안 포함)간, 그리고 중국 내륙 국경지역과 인접국가간의 협력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림 2> 동북아의 다층적 경제권과 한·중·일 3국의 국토개발전략

따라서 대내적으로 낙후지역인 서해안지역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중국의 연안지역개방정책에 대응하며, 장차 동북아 경제권형성, 태평양시대에 대비코자 서해안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동북아 경제의 주축인 한·중·일 각국이 경제권형성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목적이 상이하여 아직까지 동북아 지역내 경제권 형성은 국가보다는 기업, 산업, 지자체간 자발적인 참가 및 시장논리를 원칙으로 하는 협력형태로 자연스럽게 단계적으로 형성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황해권은 초기 민간기업들이 투자를 주도하여 일정정도 성과를 이루었고, 연안도시들간의 교통연계도 상당부분 진척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한·중간 연계도시의 경우 폭발적인 도시성장(예: 산동성 웨이하이시)이 이루어져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관심이 지대하다. 따라서 황해권의 산업협력은 공동의 이익이 보장되고, 물적 연계망이 갖추어진 지역부터 확산되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국의 연해지역개발계획과 한국의 서해안개발계획 등 양국정부의 개방적인 지역개발정책으로 향후 기반시설개발 및 공동이용, 제도적 상충성 제거, 산업분업체제가 형성된다면,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동북아 국지경제권과 각국의 국토개발전략[5)]

국지 경제권	대상지역	특 징	국토개발 전략
환황해 경제권	중국,한국,북한	• 한국의 북방정책, 중국의 개방정책에 의해 경제교류 진전 • 92년 한·중 국교수립에 의해 가속화	• 중 국: 河北,天津,遼寧, 山東으로 환발해경제권을 형성하여 일본, 북한, 한국과 지역산업협력강화 • 한 국: 서해안개발 전략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낙후된 지역개발 추진
환동해 경제권	남·북한, 일본, 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3성	• 냉전체제 종결, 러시아, 중국의 개방정책에 의해 경제교류 진전, 일본은 일본해 연안의 도도부현이 적극적	• 일 본: 일본 서해안지방정부들(토야마, 니가타 등)의 불균형 해소 전략 • 한 국: 강원도를 비롯한 한국동해안 지역개발전략
환남해 경제권	중국(복건성, 절강성,광동성) 대만, 홍콩	• 중국 개방정책에 따라 ANICs, 일본으로부터 투자급증. 고성장 지속, 중국의 발전 지탱 • 홍콩과 광동성, 대만과 복건성이 긴밀한 경제관계 형성	• 중 국: 장차 동남아 국가까지 포함하는 남중국해경제권으로 발전시켜 중국남부의 지역개발 촉진 구상
두만강 유역개발	북한,중국, 러시아 극동	• 중·북한 러시아 국경의 두만강 유역개발계획 추진중	• 두만강경제권을 형성하여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동북아 5개국의 지역개발확대전략
성장의 사각지대	태국북부, 미얀마,라오스, 중국 운남성	• 현재 이 지역은 국경무역활발 • 국경무역 확충과 오지개발을 통한 자원확보 (광물, 목재)	

5) 국토계획에서 초국가적 시각을 반영한 계획으로는 유럽에서는 프랑스 제10차계획, 네덜란드 4차계획, 독일의 지역계획, 덴마크의 2018국토계획의 예가 있으며,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 중국과 일본도 국토계획에서 하부지역 경제권형성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 경제권 형성의 요소조건 및 효과

이념이 붕괴되고 경제가 중요시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각국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모색중이다.

1)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

동북아 지역 역시 EU, NAFTA 등 지역주의화에 대응하여 경제권 형성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역내 각국이 무역 및 산업측면에서 보완관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역내 각국은 범용산업의 동시 다발적 육성으로 세계시장에서 상호경쟁하여 본격적인 공급과잉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범용기술산업인 경우 향후 상호 공급조절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역내 부품 및 중간재의 분업구조를 심화 확대하기 위한 현지기업의 경우 현지와 연계되는 생산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통합과 함께 제조업을 대신해 금융, 정보, 통신이 새로운 비교우위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하여 기존 경제개발전략 및 경제·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경제체질강화를 위한 산업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의 민간부문과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산업협력기구 및 기술협력센터 창설이 필요하며 산업발전전망, 수급전망, 부품산업의 보완관계 제고,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국지경제권 개발은 총수요진작의 가장 중요한 기폭제로 총수요 진작을 위해 역내의 국지적 경제협력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지경제협력체의 핵심 목표는 각 지역의 비교우위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자원, 노동력, 자본, 기술 등 생산요소의 부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결합하면 전 지역의 효율성이 제고, 특히 국지경제권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의 무역으로 역내무역이 촉진된다.

2) 경제권 형성의 조건

경제권형성의 조건을 포터의 요소조건에 견주어 보면, 경제적 부존자원 즉 천연자원, 인력자원, 자본자원 측면에서 불형평성과 상호보완성이 있는가, 둘째, 경제발전단

계상 국제분업논리가 가능한가, 셋째, 경제지리적 우위성과 적응성이 있는가 측면에서 검토할수 있다.

첫째, 부존자원측면에서 천연자원은 중국이 풍부하고, 남한과 일본은 천연자원이 부족하여 오랫동안 해외개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황해권의 자원을 개발하게 되면 수송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노동력자원 또한 중국이 우위에 있으며, 자본과 기술은 한국과 일본이 우위이다.

둘째, 경제발전단계상의 상호보완성을 보면, 국민총생산액에 의해 경제발전단계를 가늠하는데, 선진국, 중진국, 개발도상국이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구조, 기술수준, 노동생산성의 이질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1, 2차 산업간 수직분업, 경공업과 중화학공업간 산업내 수평분업, 노동집약적 공정과 자본집약적인 공정간 공정별 분업, 대량생산품과 고부가가치 제품간의 제품차별화 분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분업이 가능하다. 셋째, 황해권내에는 소·중·대도시가 회랑을 이루고 있고, 양호한 공업발전 기반이 갖추어져 있으며, 산동성과 한국서해안은 근접해 있고, 해상 7개노선 및 항공 9개노선이 개설되어 있어 접근성이 유리하다.

3) 경제권 형성의 효과

황해권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지니며, 역내 풍부한 부존자원, 경제의 높은 상호보완성 및 역동적인 성장률 등으로 경제권이 형성되면, 첫째, EU 및 NAFTA 같은 폐쇄식 경제권 형성으로 인하여 받는 시장축소가 어느 정도 상쇄될수 있고 신시장 개척으로 인한 경제발전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둘째, 내부시장 개척과 내부산업 협력강화를 통해서 수출완제품, 수입자본 설비 및 중간제품의 선진국에 대한 과도한 의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셋째, 역내 각국의 국지지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이용함으로써 상호보완우위가 발휘된다. 넷째, 각국간의 수입격차를 축소함으로써 내부시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보장할수 있다.

다섯째, 새로운 자유무역체제에서는 세계적 경제권역화의 추진으로 규모와 범위의 경제성이 경쟁력결정의 주요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홍콩과 단일무역권을 형성할수 있는 중국에 비해 한국은 지극히 불리한 상황이며, 한국에게는 경쟁보다는 협력에서 얻는 효과가 더욱 크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향후 경제협력이 가능한 분야인 투자협력, 자원개발협력, 산업협력, 교통·통신협력, 환경협력, 관광협력 및 두만강 지역개발과 같은 지역개발협력 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3장

황해경제권 산업협력 및 산업입지 특성

1. 산업협력과 경제권 형성

국제산업협력이란 서로 다른 국가의 제조기업이 자본, 기술,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 각종 기업경영활동의 제 분야에서 쌍방 공동이익을 추구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자산의 교류 등을 위해 합작투자나 장기적이고 명시적인 협력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장기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각종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연구개발과 기술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 마케팅 분야의 협력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제산업협력에서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협력을 통한 경제권 형성은 지리적 인접성과 역내 국가간 경제요소의 상호보완성이 그 기반이 되며, 이를 통하여 규모의 경제효과, 역내분업효과, 그리고 대외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M. Porter가 한 국가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는 생산요소의 질, 국내소비자들의 요구수준, 관련산업의 발전수준, 산업의 경쟁구조라고 주장한 바에서와 같이 한 국가가 위의 요소에서 부족할 경우 인접한 상호보완적인 국가와의 협력은 이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이다.

경제발전수준이 유사한 국가간에는 수평분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경제발전수준이 현저한 국가들 간에는 기본적으로 수직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북아 지역에는 요소부존의 차이 뿐 아니라 경제발전수준의 차이가 현저하여 형성된 상호보완성이 국제분업과 협력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수직분업 위주의 협력은 평등, 호혜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투자와 기술이전을 통해 기술수준과 산업단계를 높이고 수평분업을 발전시켜 국제분업의 기초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업협력을 통한 경제권 형성의 대표적 사례는 EU에서 독일과 프랑스의 상호보완적 산업협력, NAFTA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성장삼각지대를 그 예로 들수 있다.

2. 한・중 상호보완성 및 산업경쟁력 분석

1) 지리적 인접성

제품의 시장으로서나 혹은 연관산업의 기지로서 혹은 경쟁업체로서 가까이 있을수록 상승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아 부유한 나라들이 특정한 지역에 몰려 있다는 사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산업은 특정지역 때로는 같은 도시에 몰려있는 사실, 관련업체들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모여 있다[6]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즉, 이웃나라가 잘 살면 한국도 잘 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첨단 컴퓨터 관련업체들은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니에폴리스시를 중심으로 몰려있고 이탈리아의 고급 의류회사들은 남부의 두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에 공통된 현상이다. EU와 NAFTA 역시 인접국가와의 경제통합이다.

동북아 특히 중국이 한국산업에 중요한 이유는 시장의 거대성, 지리적 근접으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 및 시너지 효과 때문이다. 경제권형성의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근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보완성, 지리적 근접성 및 교통통신의 물리적 연계성이다.

山東省 威海市와 한국의 가장 가까운 곳과의 거리는 약 94해리이고, 인천, 군산, 목포에서 중국의 주요 해안도시와의 거리는 300～500해리 정도이며, 따라서 컨테이너선 기준으로 15～20시간 거리이다. 현재 인천과 威海, 青島, 天津, 大連, 단동 그리고 군산-烟台, 부산-烟台間 해상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과 北京, 沈陽, 青島, 天津, 하얼빈, 大連, 長春, 烟台 그리고 부산과 북경과는 항공노선이 설치되어 있고 약 2시간권이다.

2) 상호보완성 분석

한・중간에는 단기・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원과 노동력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과학기술과 시장 측면에서 상호 보완성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

6) 빈번한 접촉은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결과 환경의 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요즘처럼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는 때에는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일 자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은 기업차원 뿐 아니라 국가차원에도 해당된다. 앨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에서 발전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의 차이는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의 차이라고 한다. 따라서 협조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국가는 서로 가까이에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1) 요소부존 측면

요소부존은 자원, 노동력 그리고 시장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 에너지의 98%와 주요한 원자재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국토면적이 중국의 1/12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고 자연자원 또한 결핍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원부족은 한국경제 발전의 제약요인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960여만㎢의 국토에 농업자원, 지하자원 및 수자원 등 자연자원이 풍부하다. 일부 주요자원은 부족한 상태이나 자원의 총량은 매우 풍부하며 특히 중서부 지역에는 개발되지 않은 막대한 양의 자원이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크다. 특히 농산물, 석탄, 희토 등 자원개발은 한국경제발전과 상호보완성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은 1988년 이후 임금이 매우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1995-1996년 현재 중국 제조업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은 한국의 1/10수준이다. 중국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도 상승중이지만, 중국 중서부지역의 노동력비용은 더욱 낮은 수준이어서 이러한 저렴한 노동력은 한국의 대중국투자 요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9.9만㎢의 면적으로 세계의 0.8% 수준에 불과하며, 5천만명의 인구여서 국내 시장규모로는 선진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수요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국제화와 세계화는 한국경제발전에서 필연적인 조건이다.중국의 인구는 12억을 넘어 세계인구의 1/5을 차지하며, 중국은 세계 최대의 상품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시장은 발전추세에 있어 한국은 중국시장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을 꾀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양국간 자연자원, 노동력 등 부존요소 및 산업의 발전단계와 구조가 상당한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있어서 기초적 상호보완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많은 거래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2) 과학 및 생산기술 측면

동북아 경제권 지역내 분업구도에서 한국의 기업·산업이 일본, 중국 등에 대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고기술제품의 생산과 제품·공정의 개량·개선 및 상업화연구 등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공업화의 중간단계에 처해 있어 산업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자본, 기술 및 설비의 도입이 필요하며, 한국은 해외투자와 외자도입을 통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추진중이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생산기술은 중국이 발전단계상으로 보아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표 3-1> 한·일·중 3국의 경쟁우위 비교

	상품화연구	제품·공정 개량·개선	고기술제품 생산	저기술제품 생산
일 본	◎	◎	△	×
한 국	△	○	◎	×
중 국	×	×	△	○

주: ◎ 강한 우위, ○ 우위, △ 중간, × 열위
자료: KDI, 知識基盤經濟 活性化를 위한 政策協議會, 1998. 12. 22.

중국은 농업 및 공업의 생산기술수준이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다양한 산업분야에 걸친 산업기술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농업 및 공업 생산기술수준은 중국에 비해 발전되어 있으나 생산설비가 노후화 되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설비를 교체해야할 입장이다. 국제기술환경 측면에서 볼 때 한·중은 공동전략뿐 아니라 한국 및 중국측 수요 측면에서 상호보완성이 존재하여 과학기술협력이 절실하다<부표 2 참조>.

현재 한국은 반도체, 전자, 조선, 철강 등의 영역에서 세계의 선진국 수준에 있으며, 자동차, 석유화학, 방직 등의 분야에서도 매우 강한 경쟁력을 보유 이미 세계 5위권에 위치해 있다. 중국은 현재 전반적인 과학기술수준이 낮지만 항공우주, 마이크로전자, 생명공학, 신소재 등 첨단기술개발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상호보완성과 협력가능성은 양국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다.

(3) 상품교역구조를 통해 본 상호보완관계

① 산업간 무역

한·중간 교역은 부존자원의 차이 등에 따라 중국은 1차산품과 원료를 수출하고, 한국은 자본기술적 공업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산업간 비교우위에 근거한 상호보완적 교역구조이다. 1997년 한국은 섬유류, 화공제품, 기계전자, 철강, 플라스틱 등 공산품이 수출류의 95%이상을 차지하여 원부자재 중심의 수출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중 유기화학품, 유류제품 등 화공제품과 일반기계, 가죽모피제품은 대표적인 흑자품목이다.

대중수입상품은 섬유류, 농산물, 광산물, 철강, 금속, 전자, 화공제품 등으로 기초 공산품 및 원자재가 총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은 한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광물성 연료, 농산물, 금속광물 등이 주종이고, 전자부품, 일반기계, 플라스틱, 고

무 등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부품, 경공업품 등 노동집약적 상품이 적자품목이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따라 유기화학품, 철강제품, 섬유사, 직물 및 전자부품에서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산업내 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산업에서 수평적 분업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3-2> 대중 10대 수·출입 및 흑·적자 품목 현황(1997)

수 출			수 입			흑 자			적 자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유기화학품	2,483	1	철강제품	1,480	1	유기화학품	2,152	1	광물성연료	1,106
2	유류제품	1,549	2	농산물	1,121	2	유류제품	1,431	2	농산물	1,056
3	직물	1,364	3	광물성연료	1,106	3	일반기계	925	3	철강	548
4	일반기계	1,034	4	전자부품	825	4	직물	578	4	섬유제품	546
5	철강제품	932	5	직물	786	5	가죽모피	796	5	임산물	172
6	가죽모피	807	6	섬유제품	748	6	섬유원료	501	6	비금속광물	165
7	전자부품	801	7	생활용품	468	7	종이제품	442	7	비철금속제품	163
8	섬유사	519	8	유기화학품	331	8	플라스틱	225	8	수산물	158
9	섬유원료	507	9	섬유사	299	9	섬유사	220	9	생활용품	154
10	종이제품	448	10	비철금속제품	285	10	수송기계	153	10	금속광물	112

자료: 한국무역협회, 수입통계, 수출통계, 1998.6

② 산업내 무역지수7)

산업내 무역은 동일산업에 속하는 재화간에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투입요소의 유사성이나 최종수요에 있어서의 대체성 등의 측면에서 양국간 교역에 긴밀한 상호보완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된다. 산업내 무역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고 그 만큼 양국의 산업이 상호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고 해석된다. 특히 경제발전단계가 유사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된 국가들의 경우에는 국가간 수평적 분업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내 무역이 활발해지게 된다.

한중간 무역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여 산업내 무역지수를 산출하여

7) Grubel-Lloyd에 의하면, 특정국과 교역상대국간 산업내 무역지수(Intra-Industry Trade)는 다음 방법에 의해 산출된다.

$$IITi = \frac{(Xi + Mi) - |Xi - Mi|}{(Xi + Mi)} = 1 - \frac{|Xi - Mi|}{(Xi + Mi)}$$

단, IITi : i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 Xi : i산업의 수출액, Mi : i 산업의 수입액

또, 전체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는 개별 산업의 산업내 무역지수 IITi를 전체 무역액(수출액 + 수입액)에서 해당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함

$$IIT = \Sigma \frac{(Xi + Mi) - |Xi - Mi|}{(Xi + Mi)} \cdot \frac{(Xi + Mi)}{\Sigma(Xi + Mi)} = 1 - \frac{\Sigma |Xi - Mi|}{\Sigma (Xi + Mi)}$$

보면, 석유 및 석유제품(0.69), 화학원소 및 동화합물(0.88), 금속(0.89), 일반기계(0.45), 사무용기기(0.87), 전기기기(0.88), 반도체(0.99), 비내구소비재(0.54), 라디오수신기 및 부품(0.81), 인조플라스틱제품(0.54) 등에서 산업내 무역이 활발하고 그만큼 상호긴밀한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생산설비 등 투자측면에서의 상호보완 관계

한국은 한중수교이후 누적 무역흑자 100억 달러의 절반 이상인 57억 달러를 중국에 투자하여 중화권 지역을 제외하면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에 위치하고 있다. 1997년 현재 한국은 실행건수의 44.5%, 실행금액의 20.2%를 중국에 투자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투자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말 기준 아직 건당 투자액이 1백만달러 미만인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 목재가구, 종이인쇄 및 기타제조 등 한국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주 투자대상이다.

<표 3-3> 업종별 대중국투자 현황(1997)

(단위: 건, 백만달러)

	중 국			세 계			중국/세계	
	건수	금액	건당 금액	건수	금액	건당 금액	건수	금액
음식료품	241	148	0.61	415	523	1.26	58.1	28.4
섬유의복	600	382	0.64	1,293	1,567	1.21	46.4	24.4
신발가죽	275	185	0.67	487	433	0.89	56.5	42.8
목재가구	152	45	0.30	269	236	0.88	56.5	19.1
종이인쇄	58	48	0.82	130	259	1.99	44.6	18.6
석유화학	251	288	1.15	545	1,023	1.88	46.1	28.2
비금속광물	123	186	1.51	257	625	2.43	47.9	29.8
1차금속	116	176	1.52	247	1,289	5.22	47.0	13.6
조립금속	491	702	1.43	1,189	5,627	4.73	41.3	12.5
기계장비	164	198	1.21	307	607	1.98	53.4	32.6
기타제조	549	273	0.50	1,099	949	0.86	50.0	28.8
계	3,020	2,632	0.87	6,238	13,136	2.11	48.4	20.0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1998.

그러나 1994년 중국 내수시장진출 목적의 대기업들이 진출한 이후 건당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의 대형투자가 추진되는 등투자규모가 대형화되고 있다. 예컨대, 삼성전관은 深圳에 8천만달러, 대우자동차는 山東省에 6.5억달러를 투자하는 등 시장지향적 합자형태 증가하고 있다.

<표 3-4> 한국의 대중국투자 추이

(단위: 백만달러,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실행건수	30	69	171	376	836	725	677	618
실행금액	22.33	42.47	141.16	262.23	630.83	814.45	771	619
건당금액	0.74	0.62	0.83	0.70	0.75	1.12	1.14	1.00

자료: 한국은행, 전국은행연합회, 해외직접투자통계연보, 각년도.

한편, 대중투자경향을 지역별로 보면, 발해만과 동북3성에 실제투자의 3/4이상 집중하였다. 투자입지상[8]을 보면 山東, 遼寧, 吉林省, 天津 순으로 입지상이 크면 클수록 해당지역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투자자는 山東半島와 東北地域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대기업의 진출이 활발해진 이후 과거 山東省 以北의 渤海灣과 東北3省 위주에서 上海, 江蘇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표 3-5> 한국 대중국투자의 지역분포(1996년말 현재)

	山東	遼寧	吉林	黑龍江	天津	北京	上海	江蘇
건 수	950	780	395	201	350	227	106	160
전국비중(%)	26	22	11	6	10	6	3	5
실제투자액 (백만달러)	1,288	493	155	167	435	372	396	374
전국비중(%)	33.2	12.7	4.0	4.3	11.2	9.6	10.3	9.7
투자입지상	4.1	3.96	2.83	-	1.57	-	-	-

자료: 이문언, 중한경제협력과 환발해지역의 발전, 황해 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분업, 국토개발연구원·중국과학원지리연구소, 1997

대중국 투자가 지역적으로 山東省, 北京市, 天津, 河北省의 渤海灣 地域과 遼寧省, 吉林省, 黑龍江省의 東北 3省地域에 편중된 이유는 첫째, 중국 중앙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경우 해당지역에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자 山東省 성정부가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적극 추진[9]하였다. 둘째, 한국기업들이 환발해만과 동북 3성에 투자를 집중시키게 된 1989년 이후에는 중국 남부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 일본과 홍콩, 대만 기업

8) 1996년 각국과 중국 각 省이 협의한 투자총액에 근거하여 아래 계산식에 따라 투자입지상을 산출.
투자입지상 = (X국의 Y지역에 대한 투자액 / Y지역의 외자총액) / (X국의 대중투자총액/외자 대중투자총액)

9)) 1988년 이후 양국간 비정치적 교류가 허용되면서 산동성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990년 9월 인천~위해간 여객항로와 인천~청도간 해운노선이 최초로 개설되어 산동성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었다.

들이 기득권을 선점하고 있어 진입에 애로가 있었다. 셋째, 동북3성은 조선족 동포를 채용해 의사소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山東省을 포함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문화적으로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진출이 용이하다.

넷째, 발해만 지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원·부자재를 한국으로부터 수입,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조립가공한 후 국내로 역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물류비용을 감안,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선호한다. 다섯째, 정보수집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유사업종이 진출해있는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로 遼寧省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다는 점, 특히 大連과 沈陽은 대기업이 밀집하여 있는 공업지역이라는 점, 黑龍江省은 천연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는 점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특정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가 국제시장에서 받는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국제경쟁력의 측정은 국가간 상대가격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격측정상의 어려움으로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특화지수 등 수출성과를 통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특화지수, 시장점유율,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하여 한국과 중국 특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측정하였다.

(1) 무역특화도

무역특화도[10]는 각 품목별 수출입차를 수출과 수입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서 수출에 있어서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지수는 -1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지수값이 클수록 해당 품목의 국제경쟁력(비교우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중·일간 주요 품목별 무역특화도 지수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거의 모든 기계류 제품에서 무역특화도 지수가 높은 값을 가지는데, 특히 발전기, 특수산업기계, 산업용 일반기계, 금속공작기계 등의 품목에서는 0.68~0.82를 나타내 절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이 절대적 우위를 보이는 위 품목에서 무역특화도지수가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보다 수입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10) 각 품목별 무역특화도 지수 = (각 품목별 수출 - 수입)/(각 품목별 수출 + 수입)

<표 3-6> 한·중·일간 주요 품목별 무역특화도 지수 비교

품 목	한 국	일 본	중 국
발 전 기	-0.52	0.68	-0.37
특수산업기계	-0.51	0.74	-
산업용일반기계	-0.45	0.70	-0.61
금속공작기계	-0.66	0.82	-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0.16	0.39	0.25
통신 및 녹음기기	0.49	0.51	0.05
반 도 체	0.33	0.54	-0.50
차량(모터사이클포함)	0.68	0.72	-

주: 1995년 SITC 2단위(총 90개품목) 기준이며, 반도체는 SITC3단위 기준
자료: UN,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6. 한국은행,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주요국간 수출의 경합 및 보완관계, 1998.9.

한편, 중국은 반도체, 산업용 일반기계, 발전기에서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으나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에서는 한국보다 무역특화도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에서는 해외시장에서 경합관계에 있으며, 통신기기 및 녹음기의 경우 보완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은 특정시장의 총수입중 당해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당해국이 그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볼수 있다. 미국과 일본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2.7%, 일본은 13.9%, 중국은 7.2%이고 한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4.3%, 중국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12.4%로 한국은 중국에게 시장점유율에서 크게 뒤져 있다.

<표 3-7> 시장점유율 비교

미국시장 점유율(%)				일본시장 점유율(%)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반도체[1])(25.8)	16.2	0.8	21.2	반 도 체[2])(13.6)	16.1	1.4
컴퓨터및 관련부품(17.9)	6.0	5.7	21.5	유류제품(10.2)	21.7	0.7
자 동 차(8.2)	2.2	0.0	27.4	철 강(9.2)	31.8	14.7
의 류(6.7)	3.5	13.4	0.2	의 류(5.5)	5.1	64.1
가전제품(4.4)	6.9	18.5	23.9	가전제품(1.2)	6.7	21.9
전체시장 점유율	2.7	7.2	13.9	전체시장 점유율	4.3	12.4

주: 1997년 HS 4단위(총 1,241개품목)기준. 반도체는 8541·8542, 컴퓨터 및 관련부품은 8471·8473, 자동차는 8702~8705, 의류는 HS2단위 61·62, 가전제품은 8509·8510·8516·8518·8519·8525를 각각 합산하였으며, ( )내는 한국 대미 총 수출중 각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1) 1997년 기준 한국의 대미수출중 상위 5대 품목(HS4단위 기준)은 반도체, 컴퓨터 및 관련 부품, 자동차, 의류, 가전제품 등이며, 이들 품목이 한국의 대미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3%임.
2) 1997년 한국의 대일 총수출에서 반도체, 유류제품 및 철강 등 상위 3대 품목(HS4단위 기준)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임.
자료: 미국 상무부, 무역통계(KOTIS). 한국은행

품목별로 보면,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반도체에는 앞서 있으나 의류 및 가전제품에서 크게 뒤져 있으며, 일본시장에서는 반도체, 유류제품, 철강에서는 앞서고 있으나 의류, 컴퓨터 및 관련부품, 가전제품에서 크게 뒤떨어져 있는 형편이다.

(3) 현시비교우위지수(RCA)[11)]

경제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우위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각국의 품목별 시장점유율을 당해국의 전체 시장점유율로 나누어 산출한 지수이다. 즉, 해당국가의 수출규모가 커지게 되면 비록 비교우위는 없더라도 시장점유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현시비교우위지수에서는 전체 시장점유율을 대용변수로 하여 그 나라 경제의 상대적 크기를 반영한다.

해외시장에서 특정수출품목의 시장점유율이 그 나라 전체상품의 평균시장 점유율보다 크면 현시비교우위지수는 1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 경우 당해품목은 자국의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시장에서 한국의 상위 5대 수출품목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보면,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1을 상회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류 및 가전제품에서는 중국에 뒤져 있고, 자동차에서는 일본에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미국시장과 일본시장에서의 현시비교우위지수 비교

미 국 시 장				일 본 시 장		
	한 국	중 국	일 본		한 국	중 국
반 도 체	6.1	0.1	1.5	반 도 체	3.7	0.1
컴퓨터 및 관련부품	2.3	0.8	1.5	유류제품	5.0	0.1
자 동 차	0.8	0.0	2.0	철 강	7.4	1.2
의 류	1.3	1.9	0.0	의 류	1.2	5.2
가전제품	2.6	2.6	1.7	가전제품	1.6	1.8

자료: 한국은행,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주요국간 수출의 경합 및 보완관계, 1998.9

일본시장에서는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유류제품 및 철강에서 현시비교우위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류 및 가전제품에서는 중국에 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11) 현시비교우위지수(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는

$$RCA(i,j,k) = \frac{(Xiik/Xik)}{(Xjk/Xk)} = \frac{(Xiik/Xik)}{(Xik/Xk)}$$

여기서 RCA(i,j,k)는 k시장에서 i국의 j품목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이다. 그리고 Xijk 및 Xik는 각각 k시장에 대한 i국의 j품목 수출액, k시장에 대한 i 국의 전체수출액을, Xjk 및 Xk는 각각 k시장에 대한 j품목의 총수출액, k시장의 총수입액을 나타낸다.

중국의 경우 의류 및 가전제품에서의 비교우위는 해외직접투자 형태로 진출한 기업들이 본국으로 수출을 늘린 기업내 무역의 증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한・중 지역경제 및 산업입지 특성

1) 중 국

중국은 경제개혁 이후 높은 성장성과 역동성을 시현하였다. 1978-1996년간 1인당 GNP 약 15배, 수출은 연평균 16.4%, 수입은 연평균 15.2%, 무역의존도는 3.64배, 외자도입 약 50배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96년중 대외교역규모는 세계 11위에 해당하는 2,89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부표 3참조>.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은 극심한 경제력 격차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대외무역액, 1인당 GDP 측면에서 볼 때 연해지역, 중부지역 및 내륙지역의 격차가 뚜렷하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부표 4, 5참조>. 지역별 1인당 GDP의 전국평균 대비율은 1996년 최저 37.2%(貴州), 최고 395.4%(上海)(1990년 최저는 광서로 63.0%, 최고는 上海로 380.6%)로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전국평균 대비율은 1996년 최저 0.7%(靑海), 최고 8,079%(廣東)이다. 수출입의 전국평균 대비율은 1996년 최저 1.7%(티벳), 최고 1,159%(廣東)이다.

중국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1차산업, 경공업 및 중공업이 고루 분포하고 있다. 다만 지역별로 업종간 우위가 다르게 나타난다. 1차산업은 山西, 江西, 河南을 포함한 내륙지역과 黑龍江, 遼寧, 山東을 포함한 동북3성과 황해권에 속한 동해연안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경공업은 山東, 江蘇, 廣東, 上海 등 동해연안지역과 湖南, 湖北, 河南, 云南 등 내륙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중공업은 대체로 동부 연안지역에 발달되어 있으며 일부 업종 즉 자원을 바탕으로한 업종은 내륙에도 잘 발달되어 있다<부표 6참조>.

2) 한 국

한국은 정부주도・대기업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양적 성장에 성공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세계 1~2위), 전자(세계 4위), 자동차・석유화학(세계 5~6위) 산업에서 생산규모는 세계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나 고비용구조의 고착으로 수출물량은 증가하나 단가는 하락하는 양적 성장의 한계,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수입유발적 산업구조고착, 수도권과 지방산업간 성장불균형을 초래하였다.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된 반면, 서해안 지역에는 미미하다. 서해안 지역은 1970～1985년간 -1.0%, 1980～1995년간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0.6%로 전형적인 인구유출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의 연안지역 개방정책에 따른 서해안개발계획 수립과 제3차국토계획에서 신산업지대 지정, 광역권 지정의 효과로 대기업을 비롯한 제조업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산만권은 자동차,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산업의 생산・수출기지로 부상하고 있다. 군・장권은 자동차, 전자, 정밀화학, 제지, 중기계 및 운송장비, 철강 등 임해형 자본재 기간산업과 대중국교역에 유리한 자동차 부품 및 기계산업이 입지하고 있다. 광양만권은 철강과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관련산업 또한 집적하고 있다.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지수(전국=100)로 볼 때 서해안 지역은 수도권 및 동남권 지역과 비교하여 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나 전국평균에 비해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3-9>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지수

	전국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	100	47.6	87.7	184.5	42.8	101.8	60.5	46.8	66.9	102.5	209.1	8.4
1995	100	35.9	57.7	164.3	48.2	174.4	81.8	61.3	82.8	105.3	204.8	8.0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1990, 1995.

3) 북 한

북한의 지역별 경제지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구밀도를 가지고, 지역경제 구조를 유추해 보면, 서해안지역은 내륙지역이나 동해안지역 보다 비교적 발달되어 있다. 인구밀도가 200인/㎢ 이상인 지역은 평안북도(201), 평양(1011), 남포(339), 평안남도(218), 황해북도(201), 황해남도(255) 그리고 개성(333)으로 모두 서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내륙 및 동해안 지역의 인구밀도는 모두 200인/㎢ 이하로 나타난다.

북한의 군수산업은 주로 내륙 및 산간지방, 비군수산업중 교역위주의 산업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항만이 발달된 지역, 비군수산업중 내수위주의 산업은 국내 교통의 요지인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최근 남한과의 경제협력은 주로 임가공 산업으로 남포를 비롯한 서해안 항구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4. 한・중 산업 및 지역정책방향

1) 21세기 한국의 산업정책방향

21세기 한국의 산업정책방향은 핵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산업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기계류・부품・소재 등 핵심자본재의 조기 국산화로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 8개 주력산업과 27개 지식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기술혁신거점의 확충 등 기술하부구조의 효율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정책방향이다.

<표 3-10> 21세기 한국의 산업정책

산업정책의 골자	주 요 분 야
기존 8개 주력산업과 27개 지식기반 신산업육성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 일반기계산업, 섬유산업, 신발산업, 가전산업 등 8개 주력산업과 메카트로닉스, 카일렉트로닉스, 정밀기기, 항공우주, 신소재, 생물산업, 의약산업, 환경산업, 정밀화학, 통신기기산업, 컴퓨터 산업, 반도체 산업, 디지털 가전, 신에너지 등 14개 지식기반제조업 및 디자인, 엔지니어링, 광고, 컨설팅, 정보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영상・음반산업, 출판, 관광,인터넷관련서비스,멀티미디어교육서비스,방송,의료서비스산업 등 13개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자료: 산업자원부,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1999.1

2) 중국의 9・5계획과 2020 지역별 산업정책방향

중국은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구조개선에 역점을 두어 경제체제를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구체적 추진전략으로서는 첫째,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둘째, 산업발전의 지역간 격차 해소, 셋째, 기초시설, 기초산업 및 지주산업과 첨단산업의 육성과 이를 지원할수 있는 국제기준에 맞는 비교적 대규모의 기업체제구축, 넷째, 외자유치와 산업정책의 연계강화, 다섯째,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건설 등 5개 산업을 지주산업으로 선정하였다.

<표 3-11> 중국의 주요산업과 집중발전분야

주요산업	발 전 목 표	발전분야(진출 유망업종)
기 계	• 기초기계・부품・장비의 국산화율 제고 • 2020년 세계 10위 수출국	• 수치제어식 공작기계,기초부품 (철도・승용차・정밀기기용), 발전설비, 고압송변전설비, 환경오염방지 설비, 계측설비, 화공플랜트, 농기계
전 자	• 수입대체 및 고부가가치화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	• 컴퓨터 및S/W, 신용부품, 통신설비 (무선), 산업용 전자・정보산업
석유화학	• 2000년 수출 100억달러 100개 수출기업육성	• 기초화학, 화학비료,석유화학(합성 섬유・수지・고무) 정밀화학, 화공설비, 타이어
자 동 차	• 2010년 3~4개 대기업육성 • 핵심부품개발 및 부품기업중점 육성	• 산업용 상용 자동차, 첨단자동차 부품, 자동차 인테리어
건 설 업	• 주택개혁과 SOC 확충지원	• 도로・상하수도의 건설, 빌딩 및 아파트건축,실내장식업,부동산개발

자료: 중국의 주요산업(1996),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김영진, 강봉구 1998에서 재인용

중국의 경제지역별 산업입지 특성 및 육성정책 방향을 보면, 9・5계획기간(1996~2000년) 동안 전방위 다원화 전략을 도입하고 전국을 7개 경제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동북지역 및 환발해만지역(한국 서해안 지역과의 수출입시 상해이남지역 및 일본과 비교하여 수송비 20% 이상 절감)은 풍부한 자원, 지리적 인접성, 연계교통망 발달 등으로 무역, 투자에 있어 한국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향후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표 3-12> 중국의 산업・지역 특성 및 중점육성분야

	산업 및 지역특성	지역육성정책
동북지역	○광물자원 풍부(석유・철광석) - 농목축업 및 임업발달 - 최대중화학공업기지(중공업비중 65.4%) - 두만강 유역개발, 동북아경제권형성 및 전략적 가치가 큰 지역 - 북한·러시아·몽고와의 변경무역 발달	- 낙후된 공업기지 개조, 두만강 유역 개방 및 개발, 농업자원의 종합적 이용을 통한 중화학공업기지와 농업기지 형성 - 농산물・임삼물의 상품화기지육성 - 해당지역: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內蒙古自治區
환발해만 지 역	- 과학기술발달, 자원풍부 (석탄·석유) - 철도·도로·항만 및 통신망 발달(중국 10대 항구중 秦皇島·天津·烟台·青島·日照 등 5개항 보유)	- 遼東半島·山東半島·北京·天津·河北省 중심의 환발해경제권 형성 - 지주산업발전, 에너지기지·운송망 건설 - 해당지역: 遼寧省一部·北京·天津·河北省·山西省·山東省·內蒙古 中西部
장 강 삼 각 주 연강지역	- 농업·공업·금융업 등 균형발달 - 철강·교통설비·기계·전자·화학발달 - 교통·통신망 양호	- 포동개발과 삼협댐 건설로 上海·南京·武漢을 거점으로 경제지역육성 - 금융·무역·첨단산업기지로 육성 - 지주산업·하이테크 및 3차산업 육성 - 연해연강지역 중화학공업기지로 육성 - 해당지역: 上海·江蘇省·浙江省
중 국 5성지역	- 농업발달, 공업기초 양호, 교통편리	- 농업기지와 원자재 및 기계공업기지구축, 새로운 경제지대 형성 - 식량, 면화 생산기지로 육성 - 석유화학공업 등 기초공업 개선 - 해당지역: 河南省·湖北省·湖南省・安徽省·山西省
서남지역	- 연해·연강·연변의 3연지역으로 풍부한 농림·수산·광산 및 관광자원 보유 - 비철금속·비금속광물 최다 보유 - 사회간접자본시설 미비	- 수력발전, 광산자원 개발, 에너지기지, 비철금속생산기지, 관광기지로 육성 - 교통·에너지·인프라건설 - 해당지역: 四川省·貴州省·云南省·廣西自治區·海南省
동남연해 지 역	- 대외개발도가 높고 경제력 규모가 큼(홍콩·대만·마카오와 인접) - 5개 경제특구 - 3개 연해개방도시(심강·廣州·福州) - 경공업중심, 3차산업의 비중 높음	- 주강삼각주·福建省 동남지역을 중심으로 자본기술집약형 외자기업유치 및 고부가가치 산업중점육성 - 대외무역발전 및 석유화학공업, 철강, 에너지기지 건설, 관광산업육성 - 해당지역: 福建省, 廣東省
서북지역	-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접경지역으로 농목축업, 에너지 광물자원풍부(군사공업기지) - TCR완공이후 유럽으로 진출하는 거점지역으로 부상 - 석탄·석유·천연가스 풍부	- 아시아·유럽대륙간 운송망육성 - 면화 및 축산물기지·석유화학공업기지·비철금속기지로 육성 - 농·축산물 가공 - 에너지 및 원자재공업육성(석탄·원유·전력·비철금속 등) - 해당지역: 陝西省, 甘肅省, 영화회족자치구, 青海省, 新疆 위구르 自治區, 內蒙古 自治區

자료: 주중 한국대사관. 김영진・강봉구 1998에서 재인용

제4장
여건변화와 전망

1. 여건변화 전망

세계화와 지역화의 심화, 중국의 성장 그리고 과학기술 경쟁이 향후 한국경제발전의 기회요인인 동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을 바탕으로한 고속성장과 세계경제에서의 위상강화는 한국경제와 국제시장에서 경합관계심화를 의미하는 동시에 경제교류확대, 산업구조조정·고도화의 호기라는 긍정적인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1) 세계화와 지역화의 심화

아시아 지역은 십수년 내 미국, 유럽과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할 전망이다. 향후 범세계적 사업합리화를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의 진출로 아시아경제권의 지역분업체제가 본격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세계화전략 하에 현지생산과 지역내 조달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간 무역(inter-regional trade)의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지역내 무역(intra-regional trade)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역내 하부지역 경제권 형성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여건이 다르고 경제수준도 다르며 대부분 정부주도였으나 등소평의 흑묘백묘론 이후 시장경제화, 민영화 하는 등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역내 성장삼각지대와 같은 협력방식의 여러 성장센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 중국의 성장전망

중국은 성장과 변화의 역동성이 가장 두드러진 국가이다. 중국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1979년부터 1997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9.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1997년 수출입 규모가 3,251억달러에 달하면서 세계 10위 무역대국, 외환보유고 1,399억 달러, 외국인 투자유치 64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시현하였다.

<표 4-1> 세계 주요국가・지역의 경제성장률

(단위: %)

	1979～1997		1979～1997
세 계	3.3	개발도상국	5.0
선 진 국	2.5	아 시 아	7.3
미 국	2.5	중 국	9.8
일 본	3.1	대 만	7.3
유럽연합	2.2	한 국	7.7
독 일	2.2	싱 가 폴	7.9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중국인민일보 1998.9.25. 김영진・강봉구(1998)에서 재인용

더욱이 중국은 1992년 수교이래 한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온 교역 대상국이다. 무역수지흑자 1위, 수출 3위, 수입 3위임은 물론 중요한 투자대상국(투자건수 1위, 투자금액 2위)이다. 1970년 대중수출 57위에서 1997년 미국, 일본에 이은 3위로의 급격한 수출증가는 한국 제품 및 기술수준이 중국의 경제상황에 적합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산업간 강한 상호보완성에 기인하였다.

<표 4-2> 대중수출의 성장 추이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1997년
대미수출	395(47.3) 1위	4,607(26.3) 1위	19,360(29.8) 1위	24,131(19.3) 1위	21,625(15.9) 1위
대일수출	236(28.3) 2위	3,039(17.4) 2위	12,638(19.4) 2위	17,049(13.6) 2위	14,771(10.8) 2위
대중수출	7(0.8) 57위	15(0.09) 44위	585(0.9) 16위	9,144(7.3) 4위	13,572(10.0) 3위
총 수 출	835(100.0)	17,505(100.0)	65,016(100.0)	125,058(100.0)	136,164(100.0)

적어도 1세대가 지나면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 1,2위 강대국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30년에는 중진국수준, 2050년에는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2015년에는 GDP기준으로 미국을 추월하고, 2020년에는 세계 제2의 무역대국이 될 전망이다.

<표 4-3> 2015년 국가·지역별 GDP 전망

국 가	32개 선진국	7개아시아 국가	중 국	일 본	미 국	인 도
GDP(10억달러)	10,291	5,541	9,406	3,337	9,338	3,776
1인당 GNP(달러)	22,199	12,408	6,398	25,533	30,268	3,120

주: 7개 아시아 국가는 한국, 홍콩,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자료: 앤거스 매디슨, 중국 장기전망 보고서, 김영진·강봉구, 한·중 경제·산업협력 현황 및 증진방안, 산업경제 1998.9 재인용

World Bank China 2020에 따르면, 2020년에는 중국의 GDP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1인당 GDP가 1만 달러(구매력기준), 수출입 공히 세계 2위의 최대 경제대국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미 CIA는 2020년, IMF는 2020년 이전, 그리고 중국사회과학원은 2030년 중국이 세계 1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부표 7참조>.

한편, 영국의 Economist지는 세계 열강의 기준을 군사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경제력, 활발한 대외정책운영능력, 강력한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대외문제에 개입할 실질적인 확고한 이해관계 측면에서 평가할 때 2030년에는 미국과 중국의 2강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강력한 경제력과 더불어 중국의 산업구조도 선진국형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빠른 도시화, 이로 인한 도시 중산층 형성, 구매력을 지닌 소비자의 증가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12].

<표 4-4> 중국의 산업구조변화 전망

1995년 불변가격기준	1996	2000	2010	2030	2050
제1차산업(%)	20	17	14	9	6
제2차산업(%)	50	52	52	48	42
제3차산업(%)	30	31	34	43	52

12) 중국은 향후 10년 이내 도시중산층이 2-3배 증가될 전망이며, 이는 구매력을 지닌 소비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3) 산업 및 산업입지 경쟁 격화

시장의 확대를 위한 세계화로 산업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제경쟁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력과 창조적 자산이다. 국제경쟁에서 지금까지는 생산비가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이제는 생산비보다 생산비 이외의 요인 즉 품질, 성능, 디자인, 편리성, 고장의 유무, 납기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이 더 중요해지고, 생산비[13] 이외의 이러한 요인을 포함한 기술력이 더 중요해진다.

다국적 기업은 천연자원 중시에서 창조적 자산 중시로 경향이 바뀌고 있다. 과거 다국적 기업들이 개도국에 투자한 주된 이유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 등 생산비 절감, 신규 시장확보 등이었지만, 원자재가격의 하락으로 천연자원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수요감소로 소품종 대량생산이 힘을 잃어가면서 일부 업종에서 값싼 노동력의 매력도 퇴색하고 다자간 투자협정(MAI)이 확대되면서 신규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부담도 없어 기술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지속적인 혁신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며, 이것을 유엔은 창조적 자산이라고 일컫는다. 최근 10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나라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으로 개도국들의 투자유치비중은 1994년 40%에서 1997년에는 37.2%로 떨어지고 있다. 최근 투자가 선진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창조적 자산이 잘 구비되었기 때문이다.

2. 황해권 형성 및 산업협력이 국토에 미칠 영향

1) 기회요인

황해권 형성 및 산업협력이 국토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측면에서 살펴볼수 있다. 기회요인으로서는 첫째, 지역균형발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개혁개방과 한·중간 경제교류 확대로 낙후지역이었던 서해안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확대로 북한 서해안지역의 공단개발 가능성이 증대되었으며, 이는 향후 지역균형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 범용기술산업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한편, 중국은 한국의 현재 생산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기술이전을 계기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경쟁력, 지역경쟁력 또는 도시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과학기

13) OECD의 찰스 오먼(Charles Oman)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능수준이 낮은 인력의 인건비가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에는 25%였으나 1995년에는 5~10%로 급속하게 떨어졌다.

술 및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세계의 자본, 노동, 기술, 경영능력 등이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분업의 시대가 되어 국가간·지역간·도시간 입지경쟁력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외국자본 및 고급인력 유치를 위하여 국가·지역·도시는 입지자산 확충 및 삶의 질 제고가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산업협력 및 경제권 형성의 제약요인

첫째, 역내 낮은 상호의존도는 가까운 장래에 경제권형성에까지 이르기는 비관적이다. 유럽공동체는 1970년에 50%, '91년 60% 상회, 북미의 경우 40%, 한중일 3국의 역내무역의존도는 1996년 현재 19.2% 수준이다.

둘째, 일본은 막대한 무역흑자와 경제규모로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에 치중하기보다는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며, 경제력에 비해 지역 내에서의 역할이 미진하고 중앙정부가 황해권 형성 및 산업협력에 관심이 미약하다.

셋째, 역내국가들의 높은 대미의존도 및 군사적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미국과 1,2위의 긴밀한 교역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동북아에서 미국을 배제하고는 곤란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남북한 및 중국과 타이완간의 통일문제,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 4개 도서를 둘러싼 영토분쟁, 한일간의 독도영유권 문제, 일본과 중국간의 조어대 등 영토분쟁 미해결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하고 있다.

넷째, 역내국가들의 경제발전수준의 격차는 경제협력의 분업구조를 원활화할 수 있는 동시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분업을 저해할 요소로 기능할 가능성이 양존하고 있다. 또한 제도와 체제의 상이성, 상호 낮은 관심, 공통어의 결여, 접촉기회의 근소, 역사적 유산 등으로 자본, 노동, 정보교류가 제한되어 역내국가들의 국민간 상호관심이 희박하다. 다섯째, 연계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

제5장

황해권 산업협력에 따른 한반도 산업입지 구상

1. 한반도 산업입지 기본 방향

1) 생산요소 공급방식의 획기적 개선

한중일 3국간의 경제적 격차 속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 공급방식을 지금까지와는 달리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원자재 공급원의 창출과 신제품 및 신공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생산요소란 M. Porter에 의하면, 인적자본, 물적자본(천연자원, 입지 등), 지식자원, 인프라로 구성되며, 성질에 따라 기초요소와 고급요소로 분류된다.

기초요소의 경우 슘페터에 의하면, 새로운 원자재 공급원의 창출이다. 고급요소는 새로운 제품의 개발 또는 새로운 공정의 소개에 해당한다. 자본과 재능은 본디 특정국가에 억매이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유치, 인적 교류를 통하여 고급요소 창출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2)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

향후 산업경쟁력의 원천은 요소부존에서 창조적 자산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중국이라는 역동적인 거대한 시장으로 인하여 요소부존에 기반한 산업이 경쟁력이 있다.

미래에는 창조성이 산업경쟁력의 관건이다. 산업의 발전과 쇠퇴에 따라 지역의 흥망이 결정된다. 따라서 창조적인 지역환경을 갖춘 지역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선택, 집중·투자하여 경쟁우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3) 다층성과 점진성을 바탕으로 하고 산업, 기업, 도시 및 국가간 제휴와 연대를 통한 소지역 협동개발

쌍무 협력에서 다각적 협력으로, 수직분업에서 수평분업으로, 소범위 경제권에서 대범위 경제권으로 진행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한·중간 지자체 수준의 쌍무적 협력에서 시작하여 일본 키타큐슈지역의 자치단체 등 자발적 참여, 중기적으로 국가간의 협력 및 북한의 참여까지 유도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현재 수준의 수직분업과 수평분업의 공존상태에서,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지역이 되도록 유도한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서해안의 일부 지자체와 중국 동해연안의 지자체의 소지역 협동개발에서 시작하여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권형성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황해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산업협력과 환경협력의 조화

황해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산업협력은 환경협력을 동반할 필요가 있다. 환경에의 초기 투자가 장기적인 경쟁력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2. 한반도 산업입지 추진 전략

1) 보완성과 첨단성을 갖춘 산업구조 및 지역구조로의 개편

한반도의 산업구조 및 지역구조가 보완성과 첨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첫째, 범용상품의 상위부문 전문화(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신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이 경쟁력이 있는 범용상품, 소품종 대량생산 측면에서 성장하는 거대한 시장이다. 따라서 한국이 현재 국제경쟁력이 있으며, 선진 생산기술을 보유한 전자, 반도체, 자동차, 선박, 철강, 석유화학 등 경쟁우위 산업의 상위부문에 전문화하여 신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미래 산업구조와 보완적인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통신, 생물산업, 영상산업 및 생산자 서비스산업 등 기술력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산업육성의 토대로 학습지역(learning regions)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학습지역이란 연구개발·설계·제조·경영·판매의 전과정이 한곳에 집적하여 각 부문간 피드백, 상호작용, 상호학습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수 있는 지역구조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대안이다.

▶ 학습지역은 성장삼각지대나 마킬라도라와 같이 단순한 토지 및 천연자원, 숙련 및 비숙련노동력, 자본과 기술, 경영기법의 결합과 유대, 그리고 세제 혜택으로 인하여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된 뒤 산업화의 진전과 타지역의 비교우위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저임금 저부가가치 산업이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제품주기설에 해당하는 범용산업, 소품종 대량생산 산업에 특화된 지역이 아니다. 학습지역은 연구개발·설계·제조·경영·판매의 전과정이 한곳에 집적하여 상호작용, 상호학습을 통하여 생산되는 다품종 소량생산, 고부가가치 산업을 추구한다<부표 8, 9 참조>.

학습지역이어야 하는 이유는 국가 및 지역간의 제휴에서 상호의존성이 증대될수록 선진국(지역)과 개도국(지역)간에는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중심-주변관계가 고착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장기적으로 성장불가능하며, 따라서 제휴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분업, 산업간 분업에서 수평적 분업, 산업내 분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학습환경, 학습지역이 조성되어야 한다.

2) 전략적 산업지대 구축

산업협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선택하여 특정지역에 집중시키는 전략적 산업지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실리콘 밸리에서 보듯이 관련산업은 서로 지역적으로 집중화될 때 경쟁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현재 한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21세기 중국이 주도산업으로 발표한 기계, 전자, 화학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 부문별 전략적 산업지대를 공동으로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산업지대는 21세기 동북아 전체의 경쟁우위확보와 국가간 산업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초기에는 한반도의 생산역량 및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소협력권별로 소수의 지역을 지정하여 육성한다. 예컨대, 서해안의 주요도시와 중국의 동해안의 주요도시를 각각 지정, 한·중간 이익에 맞는 거점 사업을 발굴하여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고, 점차 양안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상호보완적인 형태의 산업협력모델을 구축한다.

▶ 예 : 영국 남부 주요도시와 프랑스의 북부 주요도시를 잇는 Transmanche Metropole 등 초국경적 산업협력 사례

▶ 적 용

- 예컨대, 현재 서해안 지역은 중국 산동승리유전산 원유[14]를 수입하여 가공·정제한 후 인근 현대 및 삼성종합화학에서 화공완제품을 만들어 생산품의 70%이상을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 국제적 산업분업이 진행중이다. 산동성은 석유자원과 반가공품을 한국에 제공할수 있으므로 석유화학분야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제의하였다.
- 석유화학산업은 제조원가중 원재료비의 비중이 약 60-70%를 차지하여 원료의 안정적 공급은 경쟁력 확보의 결정적 요인이다. 더욱이 장치산업으로서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원가가 감소한다. 한국은 원료의 절반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중국의 석유화학산업은 많은 발전성과가 있었으나 자급율은 70%수준에 불과하여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을 한국, 일본,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석유화학 최대 수출대상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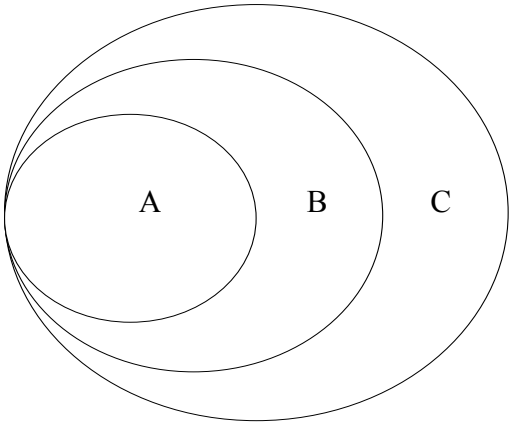
전략적 산업지대는 지역내 관련산업의 군집화·전문화를 형성하여 경재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지역환경을 조성한다. 산업협력의 범위는 쌍방에서 다자간으로,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협력내용은 관세상호양보, 공동개발에서 점진적으로 자원, 인력, 자금, 상품 및 기술 등 제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 무역투자자유지대로 발전시켜 나간다(특정지역이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30여년 정도가 필요)<부표 10참조>.

전략적 산업지대, 무역투자자유지대 구축을 통한 경제권 형성 방식은 황해 양안인 중국 동해안과 한국 서해안을 기점권(A권)으로 하여 향후 일본, 북한까지 확대하여 황발해 경제권(B권)을 형성하고, 후에 러시아 동부지역, 몽고,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중국 전 대륙까지 확대하여 동북아 경제권형성(C권)으로 나아가는 핵심확산연합방식[15]이 바람직하다.

---

14) 산동성 승리유전은 대경유전에 이은 중국 2위의 유전으로 산동성 북부 발해만 지역 황하삼각지 지역으로 동영, 혜민, 덕주, 제남, 치박, 유성, 유방 7개시 27개현에 걸쳐있다. 확인된 매장량은 수십억톤에 달하며 부근 해변지역에서 12억톤 규모의 원유매장량이 새로이 확인되었다.

15)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권 형성으로 나아가는 방안은 소권역 경제협력권간의 횡적연합 방법과 한 개의 소권역이 확대되어 대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확산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든 소권역의 형성이 1차적 과제이다. 소권역 횡적 연합이란 동북아 지역에서 초보적 형태를 가진 화남경제권, 계획중인 두만강 경제권, 추진중인 환발해경제권 등이 연합하여 동북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핵심확산연합이란 유럽의 경제권 형성방법과 같이 한 개의 소경제권이 확대되어 대경제권으로 형성되는 방식이다.



<그림 5-1> 경제권 형성의 경로

3) 서해안 개발계획의 조속한 추진 및 보완

환황해권을 겨냥한 서해안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보완을 위해서는 첫째,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부두공사(평택항, 대산항 등)를 조속히 완결할 필요가 있으며, 서해안의 인천항, 군산항, 평택항, 광양항 등에 콘테이너선 입항서비스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해안 고속도로를 개성-해주-평양-신의주까지 연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해안 신산업지대(아산만, 군장, 대불, 광양)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도권 밖 서해안 지역거점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산, 군산, 목포 등의 산업입지기반 확충과 함께 개방거점 혹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하여 생산, 기술, 업무, 주거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집적경제기반을 구축한다.

4) 황해권 산업협력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연계 추진

한・중・북한이 한국과 중국시장을 겨냥하는 합작투자형태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선진지역인 서해안 지역에 한・중・북한이 합작

투자형태로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 및 자원지향적 중공업분야의 진출을 도모하고 남북교류협력증대를 위해서는 단순 물자교역과 원·부자재의 대북반출을 통한 위탁가공(약 90%가 섬유류)교역에서 더 나아가 중국시장과 국내시장에 경쟁력이 있는 생산시설재(유휴설비: 기계, 전기·전자)의 대북이전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심화를 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단독투자를 추진하며, 북한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미래의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산업입지 기능을 부여한다.

5) 황해권 산업협력·기술협력·환경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한국과 중국의 기술협력은 양국의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산업고도화와 구조조정의 진전에 따라 상호보완성을 높여주는 분야에 대한 공동상품생산체제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기술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全 전자교환기(TDX), 자동차 등에서 중국시장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유보하고 있고 자동차부품, 반도체, 고선명 TV(HDTV) 등의 기술이전을 원하고 있다.

기존의 자원낭비, 에너지 소비형 산업구조에서 자원 및 에너지 절약형, 공해최소형의 환경적응적 산업구조로 개편하기 위하여 청정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한중간 지역내 투자가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분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생산체제상 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공부문에서 보완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한·중의 합리적인 국제분업 및 환경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계, 전자, 화학 그리고 자동차산업 전반에서 부문별『산업·기술 및 환경협력협의체』, 도시간『산업·기술 및 환경협력협의회』 또는 황해권 산업·기술 및 환경협력협의회로 확대 혹은 설립 추진한다.

한·중간 민간경제협의회와 한·중 산업협력위원회를 상호 연계시키고 기존의 국가별 협의체를 지역별, 산업별로 세분화하여 기업의 진출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의회와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한반도 산업입지 구도

한반도의 산업입지 구도는 기존의 산업입지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고, 한반도 전체의 향후 산업구조, 동북아경제권 산업협력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한국은 노동집약적 산업 및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한 부분의 이전 등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산업배치의 재편성이 필요하다. 북한은 북한이 가진 자원 및 항만입지 등에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한 산업배치가 바람직하다. 또한 한반도 주변지역에 형성중인 크고 작은 하부지역 경제권을 감안한 산업입지구도가 필요하다.

환황해권에서는 중국의 21세기 지주산업인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별로 황해 양안지역에서 전략적 산업지대구축을 꾀한다. 아산만 지역에 석유화학 관련산업의 군집을 형성하고 중국과의 분업적 생산체제를 구축하며, 군장지역은 자동차 및 전자산업 등 한중간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산업지대를 건설한다. 목포-군장-아산-서울-개성-평양-신의주축상에 장기적으로 정보통신, 수송, 첨단기술, 중추기능의 확충으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축으로 개발한다.

환동해권은 자원개발 및 수송, 관광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동해안 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포항에 철강관련산업의 군집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관광 및 에너지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적 산업지대를 동해안에 조성한다.

한·일 해협권 및 아·태 협력권을 겨냥하여 기계, 조선, 자동차 부품 및 관광산업 등을 중심으로한 전략적 산업지대를 개발한다. 남해안축(부산-마산-진주-광양-목포)은 중화학공업 및 물동량 처리의 개발축으로 서해안 산업축과 동해안 산업축을 연결하여 U자형 산업축을 구축한다.

북방협력권인 한반도 북부 한-만 국경축(신의주-청진)은 발해만 연안지역과 두만강 개발지역을 연결하는 축으로 단기적으로는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국제공동지역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경공업 및 북방자원 가공산업을 배치하여 만주, 몽고, 러시아의 시장진출 및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참고문헌

강봉구, 한・중 수교 5주년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산업경제, 한국산업은행, 1997.9

강선구, 자유무역지대(FTA)창설의 득과 실, 주간경제 제495호, LG경제연구원, 1998. 12. 2

김영진・강봉구, 한・중 경제・산업협력 현황 및 증진방안, 산업경제 1998.9

김원배, 황해국지경제권의 공간적 분업과 지역개발, 황해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분업 세미나, 국토개발연구원, 1997.

김원배, 권영섭, 이영아, 동북아경제와 한반도 구조개편전략, 국토개발연구원, 1998.

김원배, 권영섭, 한・중 경제협력 전망과 연안지역개발방향, 국토개발연구원, 1998.

대한상공회의소, 황해권(남북한・중국)의 국제경제협력 구상, 1991.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중국의 지역경제구조와 진출전략, 1996.

대한상공회의소, 한・중・일 3국의 무역구조와 상호의존, 1996.

문형기, 이훈, 김영한, 경제통합의 영향과 대응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7.

박번순 외3인, IMF사태로 본 아시아의 새로운 협력체제, 삼성경제연구소, 1998.

박은상, 산업의 국제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국산업은행 조사연구 D417.

부산일보사, 중국해방일보, 일본서일본신문,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협력과 발전, 1996.

산업연구원・국토개발연구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신공업배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1995.11.

산업연구원, 기술경쟁력의 국제비교: 미국 상무부의 분석, 1998.10

산업연구원, 세계 제조업의 변화: Economist지 Survey요약, 1998.7,10. (정책자문자료)

산업자원부,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젼과 발전전략: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고도화, 1999.1

신태용, 김화섭, 중국의 산업정책 전개와 한・중 산업협력 방향, 산업연구원, 1996.

신태용, 중국, 2050년 선진국 대열 진입유망(2), 중국경제정보 장기전망 제28호, 산업연구원, 1997. 12. 5.

심성영 주편, 동북아지역경제합작, 도서출판 고구려, 1997.

윤양수, 서해안 지역개발의 현황과 향후 과제, 황해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분업세미

나, 국토개발연구원, 1997.
이용운・이문언, 중한경제협력과 환방해지역의 발전, 황해국지경제권의 투자와 공간분업 세미나, 국토개발연구원, 1997.
이윤재, 중화경제권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방안, 조사월보, 한국산업은행, 1997. 6
정갑영・오승열・엄구호, 동북아의 신경제질서와 중국의 변화, 동북아경제연구 제10권 제1호, 1998
정조영, 한중과학기술협력과 새로운 시도, 김시중편, 한중경제협력의 신구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존 나이스비트저, 홍수원 역, 메가트렌드 아시아, 한국경제신문사, 1996.
최수웅, 중국의 지역정책과 지역경제 발전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 1994.
한국무역협회, 최근 대중수출 동향 및 무역흑자요인, 무역조사보고서, 1998.11.16
한국은행,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주요국간 수출의 경합 및 보완관계, 1998. 9

Andrew Church & Peter Reid, Urban Power, International Networkd and Competition: The Example of Crossborder Cooperation, Urban Studies V.33 N.8, 1996. 1297-1318.
David W. Edington, Learning Regions: Lessions f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Global Forum on Regional Development Policy, UNCRD, 1998.
Anthony Gar-on Yeh & Xueqiang Xu, Globalization and the Urban System in China, in Emerging World Cities in Pacific Asia, edited by Fu-Chen Lo & Yue-Man Yeung, United Nations Univ. Press, pp.219-26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998 CD-ROM.
Xiangming Chen, China's City Hierarchy, Urban Policy and Spatial Development in the 1980s, Urban Studies V.28, N.3, 1991: 341-367

부 록

<부표 1> 동북아 국가 무역 매트릭스(1996)

(단위: US 백만달러,%)

수입 / 수출	세계	동북아	일본	중국	한국	러시아	북한	동북아/세계
세 계	5,265,800	660,231	316,588	157,596	129,141	56,906	-	12.5
동북아	1,070,767	224,223	75,260	100,586	43,152	5,225	-	20.9
일 본	411,242	52,445	-	21,827	29,369	1,022	227	12.8
중 국	151,093	40,605	30,888	-	7,527	1,693	497	26.9
한 국	130,526	29,433	16,002	11,486	-	1,875	70	22.5
러시아	81,438	8,211	2,882	4,670	659	-	-	10.1
북 한	-	-	291	69	182	-	-	-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97, Sooyong, Kim, Intra-Regional Trade and Investment in Northeast Asia, EWC/KOTI Conference Hawaii, 13-14 August 1998.
북한은 북한경제의 현황과 당면과제, 한국은행(?), 199?

<부표 2>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

국제 기술환경 변화	한・중 과학기술협력의 필요성	수 요
기술패권주의	미・일・EU등 기술선진국의 패권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략 필요	한국측, 중국측 공동수요
기술보호주의	선진국의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첨단기술에 대한 상호보완 및 공동연구 필요	한국측 수요가 강함
기술지역주의	타지역의 블록화에 대비한 환황해권 협력체제가 요구됨	한국측, 중국측 공동수요
기술세계화	상호 필요 기술에 대한 보완전략이 필요. 특히 기업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전략적 동맹이 요구됨	중국측 수요가 강함

자료: 정조영, 한중과학기술협력과 새로운 시도, 김시중편, 한중경제협력의 신구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

<부표 3> 중국의 성장추이

		1978	1980	1985	1990	1996
산업구조 (GDP기준,%)	1차 산업	28.1	30.1	28.4	27.0	20.2
	2차 산업	48.2	48.5	43.1	41.6	49.0
	3차 산업	23.7	21.4	28.5	31.3	30.8
고용구조 (%)	1차 산업	70.5	68.7	62.4	60.1	50.5
	2차 산업	17.4	18.3	20.9	21.4	23.5
	3차 산업	12.1	13.0	16.7	18.5	26.0
교역규모 및 무역의존도 (억달러)(%)	수출입총액	206.4	381.4	696.0	1,154.4	2,899.0
	수출	97.5	181.2	273.5	620.9	1,510.6
	수입	108.9	200.2	422.5	533.5	1,388.4
	무역의존도(%)	9.8	12.6	23.0	29.9	35.7
외자도입	직접투자 (억달러)	41.0	105.9	121.9	1,529.5	1,798.3
1인당 GNP(위안)	경상가격	379	460	853	1,634	5,634
	불변가격('78)	379	428	665	899	1,619

<부표 4> 지역별 경제력 비교(1인당 GDP기준, 1996)

1인당 GDP (전국평균 100)	성 시
100이상	북경, 천진, 요령, 흑룡강, 상해, 강소, 절강, 복건, 산동, 광동
70-100	하북, 산서, 내몽고, 길림, 하남, 호북, 호남, 광서, 해남, 신강
70이하	안휘, 강서, 사천, 귀주, 운남, 서장, 섬서, 감숙, 청해, 영하

<부표 5> 지역별 외국인 투자 비교(1996)

외국인 직접투자	성 시
10억달러 이상	북경, 천진, 요령, 상해, 강소, 절강, 복건, 산동, 광동
4억달러-10억달러 미만	하북, 길림, 흑룡강, 안휘, 하남, 호북, 호남, 광서, 해남, 사천
4억달러 미만	산서, 내몽고, 강서, 귀주, 운남, 섬서, 감숙, 청해, 영하, 신강

<부표 6> 중국의 산업별 지역 분포

산업구분	주요산업	지 역
1차산업	석 유	흑룡강(1) 산동(2) 신강(3) 요녕(4) 하북(5)
	석 탄	산서(1) 산동(2) 하남(3) 하북(4) 흑룡강(5)
	철 광 석	하북(1) 산동(2) 하남(3) 요녕(4) 호남(5)
	비철금속	산동(1) 강서(2) 하남(3) 광서(4) 요녕(5)
경공업	담배제조	운남(1) 호남(2) 호북(5)
	식품가공	산동(1) 광동(2) 강소(3) 안휘(5)
	식품제조	광동(1) 산동(2) 강소(3) 절강(4) 하남(5)
	음료제조	산동(1) 광동(2) 사천(3) 강소(4) 절강(5)
	방 직	강소(1) 절강(2) 산동(3) 광동(4) 상해(5)
중공업	석유가공	요녕(1) 산동(2) 광동(3) 흑룡강(4) 북경(5)
	화학원료 및 제품	강소(1) 산동(2) 광동(3) 상해(4) 요녕(5)
	화학섬유	강소(1) 상해(2) 광동(3) 산동(5)
	플라스틱	광동(1) 강소(2) 절강(3) 산동(4) 복건(5)
	비금속광물	산동(1) 광동(2) 강소(3) 절강(4) 요녕(5)
	금속제품	강소(1) 광동(2) 산동(3) 상해(4) 절강(5)
	철 강	상해(1) 요녕(2) 강소(3) 하북(4) 사천(5)
	일반기계	강소(1) 산동(2) 요녕(3) 상해(4) 절강(5)
	특수기계	강소(1) 산동(2) 상해(3) 하남(4) 요녕(5)
	전기기계	광동(1) 강소(2) 상해(3) 절강(4) 산동(5)
	계량계측기기	강소(1) 광동(2) 상해(3) 절강(4) 요녕(5)
	전자통신설비	광동(1) 강소(2) 상해(3) 북경(4) 복건(5)
	교통운수설비	상해(1) 강소(2) 호북(3) 길림(4)
	자 동 차	사천(1) 상해(2) 길림(3) 호북(4) 강소(5)

주: ( )안은 생산액 기준 순위

자료: 중국공업경제통계연감 1995, 대한상공회의소, 1996에서 재구성

<부표 7> 중국 경제 전망

기관명	중국경제전망
DRI	• 미국과 견줄만한 규모 - 2010년 중화권 경제(대만·홍콩 포함) GDP 5조 5,526억 달러
세계은행	• 2020년에는 미국에 이어 GDP규모가 세계 2위, 수출입 세계 2위로 부상 (1인당 GDP 1만달러(구매력기준) • 2002년 중화권경제의 GDP구매력 평가기준 9조 8천억달러
WEFA	• 미국의 절반수준, 일본과 비슷한 규모 - 2010년 중국과 홍콩의 시장규모 7조 9천억달러
미 CIA	• 세계 1위로 부상 - 2020년 중국 대륙의 경제규모 구매력 평가기준 20조 40억달러
IMF(1997.9)	• 20년내 세계총생산의 20%를 차지하고 미국(16%)을 추월하여 세계 1위
중국 사회과학원	• 세계 1위로 부상 - 2030년 구매력 평가기준 GDP US 155조 달러

자료: 강봉구, 한·중 수교 5주년의 경제협력 현황과 전망, 산업경제 1997.9. 한국산업은행.

<부표 8> 성장의 삼각지대

▶ 라모스 필리핀 대통령은 성장의 삼각지대구상이 호응을 받는 이유는 지역협력을 위한 실험은 한정적인 범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삼각지대에 국한되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는 국가 경제 전반에 적용시킬수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 또한 이 방식은 국가의 경제관할권이 크게 침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적 통합의 혜택을 누릴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역설.

▶ 성장의 삼각지대는 다양한 기업문화와 독특한 자원의 결합에서 상승작용이 나타난 수출지역에서부터 시작. 투자국들은 자본과 기술, 경영기법을 제공하고 투자대상국들은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 숙련 및 비숙련 노동력을 제공하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명확하게 구별. 이같은 자원을 결합해 유대를 공고히 하는 것은 기업인들의 몫으로 시장의 자유경쟁논리에 따라 움직이면 더욱 성공적인 결과가 기대될 수 있음. 성장의 삼각지대는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가정(win-win propositions)에서 출발.

▶ 가장 큰 이득은 공업화의 수준이 가장 높은 협력 대상국에 돌아가게 되나 그렇지 못한 참여국도 고용증대와 기술개발, 기술이전,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훈련 전수 등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됨. 또한 성장 電極의 방전현상이 국가경제의 다른 부문을 발전시키는 촉매역할을 하게 됨. 신흥 공업국가들에게 성장의 삼각지대는 임금상승과 심화되는 산업용지 및 노동력 부족을 딛고 수출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한가지 방안이 됨(존 내이스비트 1996).

<부표 9> 마킬라도라(Maquilador)

▶ 1959년 미국과 멕시코의 접경인 Tijuana는 미국산 자재와 멕시코 노동력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Maquiladors factory 등장. 현재 이 지역에는 4,000여개의 마킬라도라 공장에 100만의 노동자가 고용되어 일년에 7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여 멕시코에서 석유산업 다음으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

▶ Tijuana의 성공은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요인 외에 미국시장에 근접하다는 지리적 여건과 부가가치 부문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세제혜택, 그리고 북미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규정(상품이 미국에 면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가지 핵심부품들이 NAFTA국가에서 만들어져야 함)때문.

▶ 멕시코와 미국간의 자유무역 덕분에 미국인들은 과거에 많은 비용을 들여 생산했던 물건들을 이제는 남쪽 이웃나라인 멕시코에서 수입하고 이런 무역창출효과는 미국과 멕시코 모두에게 이익. 그러나 한때 저임금과 저부가가치 산업에 특화되었던 이 지역경제도 산업화의 진전과 아시아 통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아시아지역의 비교우위로 인하여 저임금, 저부가가치 산업은 남미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

<부표 10> 무역투자자유지대

○ 무역투자자유지대란 내·외국인의 차별 없이 생산, 무역 등 제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단지를 포함한 특정지역을 말함. 자유지역에는 생산중심형 자유지역, 교역중심형 자유지역 그리고 무역투자 복합형 자유지역이 있음.

▶ 자유무역은 어느 나라나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소비의 양을 늘리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 경제성장의 주요인 중의 하나인 생산성에서 절대 열위에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교역조건에서는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으며, 모든 나라는 비교우위가 있는 제품을 생산, 수출하고 그렇지 않은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소비의 양을 늘릴 수 있음. 시장의 확대는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릴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선진 지식과 기술을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 성장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산업에 특화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선진기술과 지식의 유입으로 장기적으로는 성장의 속도가 빨라짐.

○ 생산중심형 자유지역에는 우리나라의 마산수출자유지역, 대만의 까오슝 수출가공구 같은 공단형 수출가공구와 국경이나 항만인근의 광역지역을 수출가공구로 지정하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Maquiladoras)가 대표적.

○ 교역중심형 자유지역에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 FTZ)가 대표적 형태로 국내의 여타지역과 공간적으로 분리된 일정구역으로서 구역내의 수입물품에 대해 수량제약, 관세 및 물품세의 지불, 외환통제, 기타 국내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등이 면제되고 있는 지역을 말함.

▶ 1997년 현재 미국에는 225개의 일반목적의 FTZ와 359개의 Subzone FTZ(우리나라의 보세가공공장과 유사한 개념)가 운용되고 있음. FTZ의 입주기업은 2,800여개이고, FTZ의 수출액은 170억 달러에 달함

○ 무역 투자복합형 자유지역에는 싱가포르, 홍콩의 예와 같이 제조업 뿐 아니라 무역, 생산, 금융 등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자유도시